

#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 하라고 하셨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내내 소외되거나 등한시되거나 홀대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자유, 친절, 공정함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검거나 희거나, 맏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권유하십니다.(니파이후서 26:33)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피부색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해 사랑을 보입시다. ●

2020년 6월 1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가져옴

